장흥군 "우리 아이 건강만큼은 격차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79명 아동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

아토피 질환인 알레르기 유발 원인 진단 검사 서비스

장흥군은 드림스타트 7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과 아토피 질환인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진단하는 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건강검진은 지역 내 장흥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항목은 기초 검진·결핵 검사·신장 기능 검사·혈액 검사 등 18가지 기본 검사와 추가로 A형·B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A형·B형 간염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안경 지원 등 맞춤형 1:1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107종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알레르기 검사는 견과류와 고등어·홍합·조개 등 해산물과 같이 식이성 유발물질 외에도 집 먼지 진드기·바퀴벌레 등 총 107종에 대한 반응 검사도 함께 병행된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성장을 돕고, 아토피와 천식의 원인을 파악하여 미리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아동과 가정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고흥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앞장

고흥군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여성지원센터 내 2층에 위치한 조손놀이방은 조부모가 만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체험프로그램과 유아용 도서, 장난감 등 놀이시설을 갖춘 놀이공간으로 2019년 9월 개소 이후 1,45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75회)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오감발달 놀이프로그램, 조부모 역할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관내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등을 대면·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촘촘하고 차별화된 돌봄 공간인 조손놀이방 운영으로 조손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영암군, 아동 치과·안과지원 프로그램 실시

구강 및 안과검진으로 관련질환 예방 및 맞춤형 처방 지원

영암군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 및 안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적절한 시기에 구강 및 안과검진을 통하여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원인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 치과·안과 지원프로그램'은 금년 10월 말까지 2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검진 및 치료·안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치과·안과 진료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장기 아동의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기본이므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검진과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성군, 주거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출향 향우 성금 기탁으로 집수리 봉사 실천

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5일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랑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가구는 이웃의 관심으로 발굴되었으며, 지붕 누수와 전기 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벌교읍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붕수리뿐만 아니라 도배 등 내부수리도 진행했다.

이번 집수리는 출향 향우 ㈜마루프런티어 유재석 대표이사의 성금 1천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받아 사용됐으며, 집수리 비용과 소외계층 25가구(가구당 10만 원)에 생활비로 지원됐다.

집수리 현장을 방문한 선남규 벌교읍장은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 밖에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벌교읍 맞춤형 복지팀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